

# 광주시 감사 활동 7개 특·광역시 1위

### 감사원 평가, 내부 혁신·재정건전성·투명성 높여 행정 신뢰성·공정성 높이고 시민 불편 해소 건설공사 하자검사 등 114건 부정적 사례 시정

광주시의 감사 활동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광주시가 감사원의 '2014년도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7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양호'등급(4위)으로 지난해 '보통'(13위) 등급보다 9단계 상승하며, 중앙행정기관·공기업·지자체 등 155개 평가대상 기관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번 평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9개 군(群) 155개 기관이 심사대상으로

분류돼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27개 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시는 전 분야에서 고르게 점수가 올라 상승해 '양호 등급' 기관으로 선정, 감사관실의 감사 품질과 역량이 대폭 향상됐음이 입증됐다. 이는 민선6기 들어 운영한 시장의 '사람존중 생명도시' 비전을 바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내부 혁신은 물론,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둔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그동안 자치구, 직속기관, 사업소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총 25회 연인원 1362명을 투입해 60억원의 재정상 조치와 17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고, 462건의 개선요구사항과 모범사례를 발굴해 광주시와 산하기관에 전파했다. 이와 함께, 감사요원의 직무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 역량을 높이는데 힘썼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재정상 조치는 150% 증가(53건 24억원 → 127건 60억원), 신분상 조치는 45% 증가(121명 → 175명), 개선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실적은 38% 증가(334건 → 462건), 일상 감사 실시건수는 62% 증가(505건 → 820건)였다. 또한, '세입분야 특정감사'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세 등 과세자료를 활용한 세입 누락분 등 조사를 통해 17억원을 추징하고, 세입분야 특정감사 세입징수 사례를 전국 지방세의수입 우수사례 발표해 타 시·도 지방세 수입에도

기여했다. 특히, 시 본청 복지건강국을 포함해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시의회 사무처와 출연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해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건설공사 하자검사 특정감사를 통해 총 114건의 부정적 사례를 적발해 시정토록 하는 등 시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박옥창 광주시 감사관은 "운영한 시장의 민선6기 시정 비전인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체 감사활동의 여건을 개선하고 감사 역량을 확충하겠다"면서 자체감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h@kwangju.co.kr

## 군견된 진돗개 나라 지킨다

### 지난해 첫 도입 6마리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돗개가 군견으로 처음 도입돼 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8일 "지난해 육군에서 6마리의 진돗개를 군견으로 도입해 현재 훈련을 시키고 있다"면서 "여러 단계의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실제 작전에 투입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이 진돗개를 군견으로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돗개는 충성심이 워낙 강해 주인인 군견병 전역에 따라 다른 주인으로 바뀌면 통제가 쉽지 않다는 단점 때문에 군견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주인을 너무나 극진히 따르는 진돗개는 군견병이 바뀌면 주인을 따라 '탈영'까지 시도하거나 시름시름 앓기도 하기 때문에 군견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 3대 토종견으로 불리는 삼삼개는 군부대에서 동계견으로 도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진돗개도 군견으로 이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견은 주로 독일산 셰퍼드와 벨기에마리노이즈, 영국 래브라도 리트리버 등이다. 군견 중 폭발물 탐지견인 '대덕산'은 마



리노이즈 수컷으로 세 차례나 국외파병 경험 있다. 2010년 10월 레바논 동명부대와 2011~2012년 아프가니스탄 오수노부대에서 활약했다.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군견은 훈련시설비, 사료비, 진료비 등 마리당 연간 150여만원이 든다고 한다. /연합뉴스



제60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가 지난 27일 광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 후 열린 시상식에서 광주일보 김여송 사장이 수상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호남예술제 60년... 한국 문화 100년 연다

### 최고상 작품 발표회로 대회 마무리... 60년 첫 책자 발간

올해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가 60회를 맞은 뜻깊은 해다. 지난 1956년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가 주최한 호남예술제는 참여 인원만 56만여 명에 이르는 전국 규모의 문화 행사다. 지난 4월 22일 발레, 현대무용 부문을 시작으로 열린 경연을 펼쳤던 제 60회 호남예술제가 지난 27일 광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를 끝으로 대장정을 마쳤다.

발표회 후에는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발레 부문의 정유진(우산중 3년)양 등 개인 최고상 수상자와 광주송원초, 동아여자중 등 종합최고상 수상 학교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다. <관련기사 22면> 김여송 광주일보사 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올해는 김남원 등 유명 예술가들을 배출한 호남예술제가 60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라며 "앞으로도 미래의 예술가들을 키워내는 데 지속적인 관심

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예술제는 60여년 동안 예술가의 꿈을 키워준 텃밭이었고 각 부문 수상자들은 현재 문화계에서 아티스트로, 교육자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이날 최고상 발표회 무대에 오른 수상자들 역시 미래 한국 예술계를 이끌어갈 재목임을 한눈에 보여줬다. 올해 호남예술제에는 모두 1만여명이 참여했다. 한국무용, 국악, 음악, 합주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연이 펼쳐졌고 미술과 작문 분야는 광주패밀리랜드에서 대회가 치러졌다. 또 미래 예술가를 꿈

꾸는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쌍그리키 축제도 관심을 모았다. 광주일보사는 호남예술제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도 준비 중이다. 오는 8월 중순에는 6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린다. 최근 10년간 미술과 작문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작품들을 전시하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인들도 함께 참여, 전시회를 빛낼 예정이다. 호남예술제 60년을 결산하는 책자도 발간한다. 책자에는 부문별 최고상 수상자 명단과 함께 호남예술제가 낳은 문화예술인들의 인터뷰와 기고, 60년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다채로운 화보가 담길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메르스 치사율 17.6%...안심단계 아니다

### 서울삼성 '진정'·강동성심 '불안'...추가확산 이번주 판가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발생이 한 달을 넘기면서 국내 치명률이 중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진자 발생 추이가 잠잠해지고 환자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면 치명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8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자료를 보면 메르스 치명률은 전체 확진자 182명 가운데 32명이 사망해 17.6%다. 이는 유럽질병통제센터가 지난 18일 기준으로 집계한 전세계 메르스 환자의 치명률 38.4%보다 훨씬 낮고 사우디의 40% 수준보다도 낮다. 그러나 10% 미만에서 머물 것이란 대책본부의 당초 예측보다는 높은 수치다. 이같은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진정 기미를 보이는 반면 강동성심병원(강) 집단 발병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앞으로 메르스 유행 정도를 가늠하는 데에는 이들 두 병원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주 초 삼성서울병원 진정세 지속·강동성심병원 집단발병 여부에 따라 국내 메

르스 사태의 향방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누적 환자수는 27일과 28일 이틀째 87명에 머물렀다. 26일 이 병원 의사가 감염 환자(181명 환자)로 추가됐지만 그 전날인 25일과 이후 27일과 28일에는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슈퍼전파자(super spreader)로 지목된 137번 환자(55)를 통한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 환자를 통한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는 24일로 이미 끝이 났다. 강동성심병원은 메르스 유행세의 남아 있는 '불씨' 중 가장 우려스러운 곳이다. 173번 환자(여·70)가 이 병원 입원 중 폐렴 증상을 보였으며 확진 전 상태가 악화돼 기도삽관을 했다. 아직 여드레가량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통상 메르스 증상 발원이 가장 활발하게 되는 시점이 환자 접촉 후 5~7일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초·중반에 환자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연합뉴스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거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 마음의 소리를 듣고

##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재단은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항우회원 자녀 중에서 애학심이 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기부가 뛰어나고 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 자격 및 선발 인원**
  - ◆지원 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항우회원 자녀 중, 중·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2014년 8.1현재 주민등록이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둔 학생
  - ◆선발예정인원: 총22명 중 광주지역 10명, 영광지역 12명 (중학생 0명, 고교생 0명, 대학생 0명)
- 선발 방법 및 구비 서류**
  - ◆선발 방법
    - 영광군민의 자녀 중 영광군수가 추천한 자(영광군 추천인식에 의한, 영광군공민회)-재광영광군항우 자녀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확정된 자
  - ◆구비 서류(재광영광군항우 자녀)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통장 사본(본인명의에 한함)
    - 성적우수자는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기능보유자나 선행학생은 증명할만한 자료 사본
  - ◆구비서류 양식은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hmygg 링크
- 선발 일정**
  - 서류접수: 2015년 7월 6일) ~ 7.31(금)
  - 최종 확정 안내: 2015년 8월경 발표(개별 통지)
  - 장학금 지급 및 중서 수여: 영광군민 자녀-영광군민의 날(9월 예정)
  - 재광영우 자녀-재광영광군항우회 송년 행사 (12월말 예정)
- 신청 방법**
  - 유선·방문접수
  - 신청 및 문의처: (502-882)광주광역시 서구 유원로 100 (동천동 예천빌딩 7층)
  - 전화: (062)522-8422 사무국장 임재경: 010-8667-6143
-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재광영광군항우자녀는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사무국으로 제출